광주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지수 공개

광주환경공단, 오늘부터 전광판 통해 표시

법적 공개대상 아니지만 시민들 알 권리 충족

광주환경공단은 19일 악취 오염도가 높은 치평동 제2음식물자원화시설의 악취지수를 20일부터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되는 악취지수는 제2음식물자원화시설 부지 경계의 복합악취를 측정한 값으로 매일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 공개된다.

광주환경공단 정문에 설치된 전광판에는 악취 복합측정기와 관능시험법의 수치를 환산한 값이 법적 배출허용기준 지수(15)와 함께 표시된다.

광주환경공단은 향후 풍향, 기온, 습도 등의 자료도 보완해 전광판에 송출할 예정이다.

악취지수는 법적 공개대상이 아니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환경 경영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공개키로 했다는 것이 광주환경공단의 설명이다.

환경공단은 최근 시민들과 함께 '민관 합동 악취점검'을 실시했으며 지난 4월 발대한 '청정도시 광주를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를 통해 시설별 악취관리 강화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추진 중이다.

김강열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지수 공개를 시작으로 슬러지자원화시설, 제1하수처리장 등의 악취지수까지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악취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민들의 '환경 행복권'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문 대통령 5·18 기념사 키워드 광주·민주·오월·국민·역사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 민주 묘지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광주 57번, 민주 21번, 오월 19번, 5·18 18번 강조

5·18 성격 규정한 '학살' 4차례, '아픔' 5차례 언급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는 뭘까'.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는 10분 가량 이어졌고, A4 용지 5장, 200자 원고지 22장 분량이다.

4251자 가운데 키워드로 꼽을 만한, 10번 이상 언급된 단어는 모두 7가지.

광주, 민주, 오월, 5·18, 국민, 함께, 시민 등이다.

그 중에서도 '광주'라는 단어는 57차례나 등장했다. 광주의 희생과 고립, 역사의 증인으로서의 광주, 왜곡과 폄훼의 희생자로서의 광주, 민주화 성지로서의 광주, 그리고 광주의 정신까지 차례차례 언급됐다.

'민주(주의)'도 21차례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다" "부채의식과 아픔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뿌리가 됐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광주는 이제 경제민주주의와 상생을 이끄는 도시가 됐다"고 했다.

한국현대사에 남을 중요한 이정표라는 점에서 '역사'라는 단어도 6차례나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아직까지 규명되지 못한 진실을 밝혀내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한 뒤 "광주가 짊어진 무거운 '역사의 짐'을 내려놓는 일이며, 비극의 오월을 희망의 오월로 바꿔내는 일"이라고 밝혔다.

'학살'이라는 용어도 수차례 사용했다. "그때 공권력이 광주에서 자행한 야만적인 폭력과 '학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대표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학살 책임자와 암매장, 성폭력, 헬기 사격 등 밝혀내야 할 진실이 여전히 많다"고 강조했다.

또 '아픔'은 5번, '모욕'과 '헬기', '피'는 2차례씩 언급됐다.

5월 정신과 지향이 스며든 단어들도 적잖다. '함께'는 13번, '진실'은 8번, '통합'은 4번, '특별법'과 '기념', '사과'와 '대구'(2·28 민주운동)는 각각 3번, '약속'과 '용기', '꿈'은 2번씩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취임 후 첫 기념사를 통해서도 "광주정신은 촛불광장에서 부활했다. 결코 잊지 않겠다. '전국의 5·18들'을 함께 기억하자"고 강조하며,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장면'으로 5·18을 기억했다.

한편 학생운동가와 인권·노동 변호사로 가시밭길을 걸으며 옥고까지 치른 그는 '5·18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을 대선공약에 넣었고, 취임하자마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새 정부 제2호 업무지시로 내리기도 했다.

뉴시스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 개정 촉구

임종기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는 최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임종기 의원(민주당, 순천2)이 대표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공무원에게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보직관리의 원칙에 따라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으로 임의 규정된 직위의 정의를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으로 강행규정하여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소속 공무원에게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보직관리의 기준을 '직급이나'를 삭제하거나 '직급 및 직위'로 개정하도록 촉구했다.

임종기 의원은 "대한민국은 엄연한 삼권 분리·분립 국가이다"며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면 집행하는 곳이 행정부이며 그 집행한 법률을 심판하는 곳이 사법부이다. 그래서 삼권이 분리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는 지방공무원법을 스스로 잘못 만들어 규정 상호간에 법률이 자충토록 하였으며, 행정부는 위임받지도 않은 입법 활동을 하면서 충돌 규정을 만드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무원에게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정의를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보직관리 기준 또한 명확하게 바로잡아 직위를 부여하도록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임종기 의원은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번 건의안은 정외대와 국회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보낼 계획이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동구, 세계수영선수권 대비 폭염저감 시설 확대

광주 동구가 무더위에 대비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폭염저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구는 7월 12일부터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혹서기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 유동인구가 많은 충장로·금남로를 중심으로 폭염저감 시설을 집중 설치할 예정이다.

먼저 지난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구름다리(플라자브릿지)에 설치해 무더위에 탁월한 효과를 본 쿨링포그(Cooling Fog) 1개소를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추가로 설치한다.

서구, 김용택 시인 초청 아카데미 개최

광주 서구는 21일 오후 2시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94회째를 맞은 이번 아카데미는 "섬진강 시인"으로 잘 알려진 김용택 시인을 초청하여 "자연이 말해주는 것을 받아쓰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시인의 고향마을 인근 섬진강에서 보고 느낀 자연의 이치와 교감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서 발견하는 삶의 아름다움과 함께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자아성찰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자연을 삶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 절제된 언어로 형상화해 시인 김소월과 백석의 계보를 잇는다고 평가받고 있는 김용택 시인은 30여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연과 어린이 등을 소재로 작품활동을 하였고, 퇴임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남구,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지역 점검 이상무

광주 남구는 관내 일선학교에 건강한 식재료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지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식재료 제조업체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남구는 17일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작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6일 대촌동 일원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 농가 4곳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으며, 향후 작물 재배 계획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선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한 일상 점검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산 및 가공, 유통 등 식재료 유통 과정상에 가장 기초적 단계인 생산 과정에 대해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대촌동 일원 농가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와 깻잎, 오이, 고추류, 마늘, 무 등 1차 생산품이다.

북구, 사회적경제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광주 북구가 민생경제 근간을 이루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북구는 "광주시가 실시한 '2019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공모 결과에서 관내 11개 사회적기업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사업비 3억 5900여만 원을 확보했다."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기술개발, 시제품?홈페이지 제작, 홍보?마케팅, 교육훈련비 등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한 수익구조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17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11개 사회적기업(인증 8, 예비 3)과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12월까지 연간 지원한도(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광산구, 수영대회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점검

20~22일 광주 광산구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우산동 선수촌, 남부대 주경기장 등 대회 시설 주변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점검의 주요 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운영 여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오염물질 비밀배출구 설치여부 등이다.

광산구는 특히,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이나 훼손으로 방치하며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목포 · 장성 · 해남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법인설립 ■기장대리
■양도상속증여 ■건설면허신청
■기업진단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 >> 토목설계 >> 도시계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